목포시, '검은 반도체' 김 글로벌 수산식품 허브 도약

작년 1억7천500만달러 수출 '기염'
산단 집적화·수산식품수출단지 준공
AI 품질관리·국제 마른김거래소 개장
2천개 일자리·2천억 경제 유발 효과

목포시가 글로벌 수산식품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 사진은 국제마른김거래소 투시도. 〈목포시 제공〉

목포시가 세계 식품 시장에서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끌며 글로벌 수산식품 허브로 우뚝 서고 있다.

29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민국 수산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인 33억3천만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김 수출이 11억달러를 돌파하며 단일 품목 최대 비중을 차지했다.

시는 단순한 해조류 식재료를 넘어 K-푸드 확산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은 김 산업의 전면적인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 수산식품 수출 1위 도시의 위상을 굳건히 다진다는 구상이다.

전 세계 120여개국 식탁에 오르는 세계적인 '김 붐'의 최선두에 있는 목포시는 전국 수출 1위 타이틀을 거머쥐고 산업 성장을 강력히 견인하고 있다.

실제 2022년 5천480만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액은 2023년 7천840만달러, 2024년 1억3천300만달러에 이어 지난해에는 1억7천500만달러로 급증했으며, 올해 3월 기준 3천800만달러를 가뿐히 돌파하며 가파른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 같은 눈부신 성과의 기저에는 생산부터 가공, 유통, 연구개발(R&D)까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목포만의 '완성형 산업 생태계'가 자리하고 있다.

서남해안의 풍부하고 우수한 원초 생산력을 바탕으로 대양산업단지에는 19개의 대규모 김 가공기업이 집적돼 시너지를 내고 있으며, 총 1천179억원이 투입된 첨단 수산식품 수출단지도 곧 웅장한 위용을 드러내며 준공을 앞두고 있다.

초격차 기술 경쟁력과 유통 구조 혁신을 위해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 신제품 개발과 더불어 인공지능(AI) 기반 품질 판별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글로벌 표준 품질 기준을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 거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국제 마른김 거래소' 구축을 통해 가격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데이터 중심의 글로벌 거래 환경을 조성해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쥔다는 복안이다.

시는 앞으로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중심으로 원스톱 수출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국가 전략 산업을 이끌 '국립 김산업 진흥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수출단지 조성과 거래소 개장이 맞물리면 약 2천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2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경제 유발 효과를 가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폭발적인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수산식품 수출단지 준공과 국제 마른김 거래소의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폭증하는 국제 수요에 완벽히 부응하는 독보적인 고부가가치 브랜드를 육성하겠다"며 "생산과 기술, 유통 혁신을 결합해 대한민국 K-푸드 수산식품 수출을 진두지휘하는 세계적인 중심 도시로 우뚝 서겠다"고 강조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진도군, 봄철 미각 유혹 '제10회 꽃게 축제' 개최

내달 1-3일 서망항 일원서
셔틀버스·특별 할인권 제공

진도군은 봄 제철을 맞아 통통하게 살이 오른 명품 꽃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수산물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10회 진도 꽃게 축제'를 개최한다.

29일 진도군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오는 5월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임회면 서망항 일원에서 공연, 체험, 특별 할인 행사로 꾸며진다.

특히 올해는 5월2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2026 진도개 페스티벌'과 연계해 관광객들에게 두 배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군은 서망항과 진도개테마파크를 오가는 왕복 셔틀버스를 운행해 이동 편의를 돕고, 진도개 페스티벌 방문객에게는 꽃게 특별 할인권을 지급해 축제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할인권은 진도개 페스티벌 행사장 종합상황실에서 받을 수 있으며, 축제장에서 신선한 꽃게 구매 시 1kg당 5천원(1인당 최대 3kg)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행사장에서는 관광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펼쳐지며, 현장 꽃게 경매를 비롯해 꽃게라면 끓이기, 푸짐한 경품이 걸린 꽃게 댄스 챌린지가 진행되며, 진도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이색 포토존도 조성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진도 꽃게가 널리 알려지고 소비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수산물 축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신안정원수협동조합 "수수료 30%·셀프 검수 명백한 허위"

수수료 2%·검수 1·2차 교차 점검
왜곡 보도 정정 촉구…민·형사 대응

〈사진〉

신안군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이 최근 제기된 고액 수수료 징수 및 부실 검수 등 일부 언론의 의혹 보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신안군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7일 성명서를 내고 사실 확인 없이 추측성 기사로 조합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한 일부 매체에 정정보도와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조합은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챙긴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 수수료율은 정관과 이사회 의결을 거친 2%이며, 이는 조합 운영을 위한 최소 비용"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조합원들은 정원수 5천 그루 기준 약 2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어 노동력 착취라는 주장 역시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른바 '셀프 검수' 의혹도 전면 부인하며, 정원수 납품 검수는 군 담당 공무원과 조합, 조합원이 합동으로 참여해 포지와 현장에서 1·2차에 걸쳐 교차 점검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특정 업체와 조합 임직원 간 친인척 관계 의혹 역시 "단순히 성씨가 같을 뿐 실제 친족 관계는 전혀 없는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합은 해당 매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박영철 이사장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로 조합의 공익성과 조합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운영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안=양훈 기자

무안군, 아동학대 예방 민·관·학 맞손

무안군은 29일 "김병중 무안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무안경찰서장, 전남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 공동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위기 아동과 가정을 조기에 발굴하고, 민·관·학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아동학대 없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군과 경찰은 학대 위험이 높은 가정을 발굴해 신속히 연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은 학생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GN(굿네이버스) 세이프스타트' 사업을 통해 전문적인 심리·정서 및 경제적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김병중 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으로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보호 체계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나주시, 배 흑성병 확산에 적기 방제 '총력'

약제 살포·청결한 환경 조성 당부

나주시는 "최근 잦은 봄비와 저온 다습한 기상 여건으로 지역 최고 특산물인 배에 치명적인 검은별무늬병(흑성병) 확산 우려가 커져 각 농가에 철저한 예찰과 선제적 방제를 긴급 당부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3월 하순부터 이어진 궂은 날씨로 인해 곰팡이균에 의한 흑성병 발생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흑성병은 잎과 과실에 검은 반점을 유발해 상품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병해로, 습도가 높은 4월 하순부터 7월까지 집중적으로 확산한다.

농가 피해를 막으려면 비가 오기 전후로 보호제와 치료제를 교차로 살포해야 하며, 연속 강우가 예보될 경우 비가 내리는 중이더라도 2일 이내에 신속히 약제를 쳐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병원균이 주로 과수원 내 낙엽과 전정 가지에 서식하는 만큼, 이를 깨끗이 수거하고 웃자란 가지를 솎아내 바람과 햇빛이 잘 통하도록 청결한 재배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형남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흑성병은 초기 방제 타이밍을 놓치면 수확기까지 걷잡을 수 없는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며 "수시로 기상 상황을 살피고 예찰과 적기 방제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함평군 '기초이음 프로젝트' 선정…12억 확보

빛그린산단 근로자 복지 등 지원

함평군은 "최근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기초이음 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2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지역 정착을 목적으로 3대 핵심 프로그램으로 꾸려진다.

세부적으로 ▲지역화폐로 통근 교통비를 지원하는 '빛그린 함평 패스' ▲지역 농특산물로 영양 간식을 제공하는 '에너지 이음' ▲신규 취업자의 장기 근속과 지역 거주를 돕는 취업 정착 지원인 '자리잡음' 사업이 추진된다.

군은 이번 맞춤형 복지 지원이 근로자의 통근 부담 완화와 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는 물론, 지역 내 소비 촉진 등 선순환 경제 구조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근로자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근로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영암군가족센터 해마루가 최근 하나금융그룹이 주관하고 세이브더칠드런이 협력하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이주 배경 아동과 부모를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암군 제공〉

영암군가족센터, 다문화 대상 한국어 교육 운영

하나금융그룹 공모사업 선정

영암군은 "군가족센터 해마루가 최근 하나금융그룹이 주관하고 세이브더칠드런이 협력하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이주 배경 아동과 부모를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족의 실생활 중심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자녀반은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과 자기표현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되고, 부모반은 경제·사회적 자립을 돕는 실용 한국어 위주로 진행되며, 오는 5월9일부터 8월22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이뤄진다.

참여 대상은 이주 배경 아동 20명과 부모 20명으로, 다음 달 8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전희자 가족행복과장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자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